

평균 산란지수 310개에 도전한다

□ 취재 / 김용화 편집부장

승 용차로 서울서 대전을 지나 옥천 인터체인지를 벗어나 금산, 무주, 옥십령을 거쳐 5시간 반만에 다다른 함양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있고 동쪽에는 가야산, 북쪽에는 덕유산이 위치해 있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천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임이 첫 눈에 들어와 박힌다.

이곳에서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경쟁력을 배가시켜 양계업의 금지탑을 쌓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60을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다하는 함양양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양기원사장을 만나 근황을 알아보고 뜻양계인들에게 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11일 취재에 나섰다.

- 편집자주 -

2010년이면 아마도 현재의 전업채란양계농가 3,000여호 중 500여 가구만이 양계업을 하

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양기원사장(60세)은 이 예상이 그저 근거 없는 예측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있는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의 흐름을 분석해 본 결과 얻어낸 결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양기원 사장

이웃 일본의 예를 보면 한 업체가 1천만수, 또는 한 농가가 100만수 이상씩 사육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도 당분간은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더 확신이 간다는 설명이다.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식란이 개방되었고 현재 전란액만 쿼터방식으로 매년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당장 수입이 저조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만일 외국의 유명 브랜드가 상륙하면 품질문제에 밀려 자칫 국내 시장은 상당 부분이 유명세를 좋아하는 소비경향에 밀려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하고 있다.

양사장은 애계원(愛鷄園)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지난 '91년 한국양계박람회 때 최우수 양계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어 그의 연구 자세는 자타가 공인을 하는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5년까지 숫자상으로 25개 지역에 정부가 양계단지조성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본래의 취지대로 무리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드문 이유를 묻자 “모양만 갖추었다고 양계단지나 양계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짧게 설명을 하였다.

현재 어느 양계장이건 노동력이 부족하여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막상 자동화를 하여도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어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설을 할 때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구상을 하여야 함에도 별 사전 정보 없이 참여자 마다 기종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서 효율성이 더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모순을 몇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자동화 인식부족, △우량한 병아리 선택 미숙, △사료문제, △전기상태 불량, △질병관리 소홀, △사양관리 기술 부족으로 대변이 되는데 이들 중 사양가들이 직접할 수 있는 일은 사양관리 뿐이다.

병아리의 경우 대개 종계장에서 MG, MS가 만연되어 질병도 돈을 주고 사는 셈이어서 아무리 농장에서 잘 해도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사료 문제로 사료라고 다같은 사료는 아닌데 대개 농장에서 값이 싸면 구입을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영양이 달라져야 하고, 사용하는 원료까지 분석하여 닭의 생리기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식과 어떤 사료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단계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도 무조건 거래조건과 가격으로 구입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국 경영분석 없이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외국은 오전, 오후 사료까지 구분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더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농장을 경영할 필요를 느낀다.

다음으로 전기문제는 자동화 기계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동화 시설을 하기에는 좀 이른감을 느낄 정도라고 실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을 잘 알고 사전에 대비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전기용량, 배전, 배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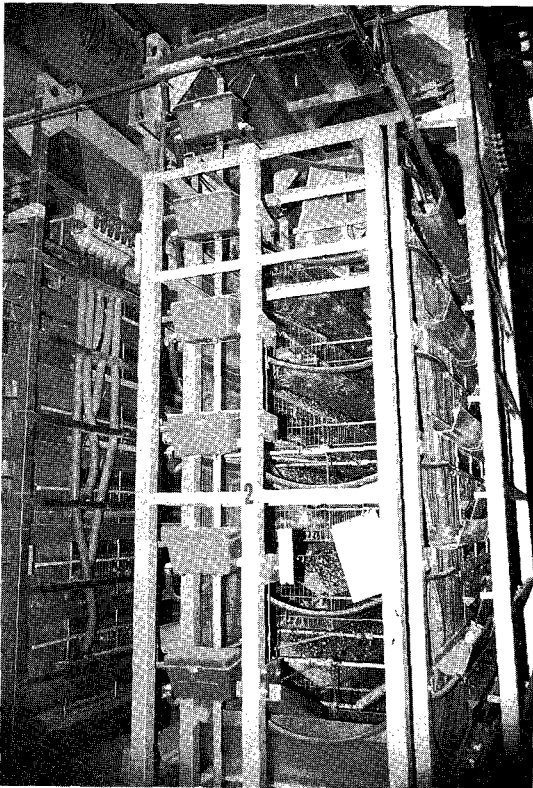
그리고 질병문제에 있어 사실 질병은 농장 경영중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여 발

병하면 110%의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만일 양계단지가 참여자마다 입추가 다르고 품종이 다르다면 그곳은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한 무창 대형계사는 그만큼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전을 기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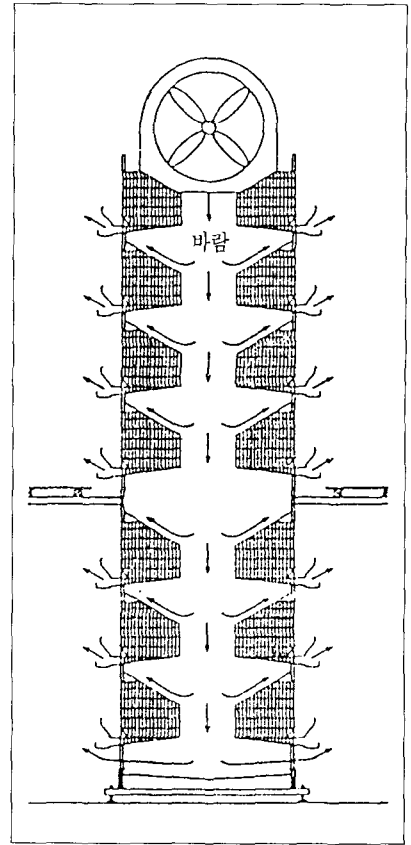
여기에 출하일령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육계산업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중계나 산란계의 질병은 늘 위험성을 등에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함양양계단지 취재에 앞서 양사장은 그간 느낀 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공사 현장으로 안내를 하였다.



△개방직립6단 육추케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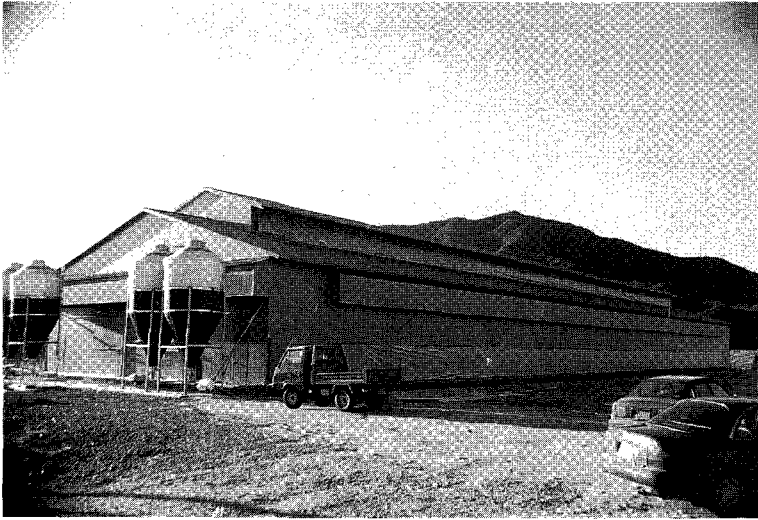
함양양계단지 (법인명 함양양계영농조합법인)는 지난 '93년 8월에 정부로부터 양계단지로 지정을 받아 1년여의 시공간을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문제로 공전하다가 9



△요시다식 개방직립 7단 케이지 측면도

명의 회의 원이 본격적으로 지난 '94년 하반기부터 총 부지 1만4천평에 산란계 30만수 규모를 목표로 시작을 하였다.

이곳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청정지역이고 기온도 북부보다는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상 개방계사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지난 '94년에는 평지작업과 '95년에 육추사 1개동, 성계사 7동의 공사에 들어가 육추사는 완공을 하여 현재 50일령의 중추가 사육중에 있으며 성계사는 골조공사와 일부의 바닥 공사가 완공되어 곧 벽체와 케이지 설비가 시작될 단계에 있다.



△ 개방육추사에는 사료빈이 보조적으로 1세트씩 더 설치되어 있다.

1차 공사가 완료되면 10만수가 입추되는데 1개동에는 2만5천수가 넘지 않게 입추를 할 계획에 있다.

개방 6단직립식이면서도 평당 100수 밖에 넣지 않는 것은 150수를 수용할 때 보다도 생산성면에서 월등히 앞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다는데 있다. 대부분 농장에서 계사를 지을 때 환기량을 정하는데 있어 온도를 21~22℃를 기준하여 표준체중에 맞추는데 이곳은 실제 산란계 평균 수당체중이 1.8kg이라 해도 2.5kg 정도를 기준하여 넉넉하게 하였다.

또한 사료를 몇 g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g을 먹고 얼마만큼의 계란을 생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아주 경제적인 기초하에 철저한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산란지수는 250개대이나 일본의 경우는 300개대, 유럽이 310개대에 접근하고 있어 함양양계단지도 향후 평균 산란지수를 300개 이상이 되도록 철저한 시설 자동화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양사장이 자동화 계사를 건축할 때 경험상 강조하는 부분은 소홀하기 쉬운 바닥의 경사도이다. 중추사의 경우 계사 길이가 80m인데 경사 높이는 40~45cm를 두었다. 사료, 계란, 계분 등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 되도록 하여 무리가 따르지 않게 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계사당 수용수수를 2만수대로 하는 것은 위험부담

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계란의 고른 생산(등급간 일정량)과 회전 비용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최종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00만수 단위가 되면 1동당 5~6만수 또는 10만수 단위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완전자동화 시설에서 계란 1개당 생산비가 63원에 이르고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는 적자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끝으로 양사장은 스스로 노력하는 양계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좋은 정보들을 교환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누구든 언제나 시설자동화에 정보가 필요하여 방문하거나 문의를 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진솔한 마음도 공개를 하였다. (연락처 : (0597)62-1170) 